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1권 2호(2010년 6월)
Korean J. Orient.Int. Med. 2010:31(2)264-272

일반인 및 내원환자의 한방병원 진료에 대한 인식도 연구

박요한, 황대선, 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EBM연구센터

Study on Perception About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Hospital Treatment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and Patients Visiting a TKM Hospital

Yo-han Bak, Dae-sun Huang, Hyeun-kyoo Shin
Herbal Medicine EBM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measure perceptions about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spitals and provide data for improvement of TKM hospital management.

Methods : We surveyed the general population from 1st to 17th December, 2008, and patients visiting a TKM hospital from 1st June to 9th December, 2008.

Results : Result as follows.

1. The response ratio for the generally preferred medical institution was in the order of western medical clinic, pharmacy, general hospital, TKM clinic, TKM hospital.

2. The response ratio for the preferred medical institution for herbal medicine treatment was in the order of TKM clinic, herbal medicine store, TKM hospital, pharmacy. The preferred medical institution for acupuncture treatment was in the order of TKM clinic, TKM hospital, acupuncture clinic, public health center.

3. The most common response to reason for receiving traditional Korean medical care was "traditional Korean medical care is more effective than western medical care."

4. The proportion of first treatment and second treatment of patients visiting at TKM hospital was about 1:1.

5. 72.3% of patients had been to another medical institution.

6. The response ratio for the first visited medical institution for the same disease was in the order of general hospital, western medical hospital, western medical clinic, TKM clinic.

7. The response ratio for the concern about TKM treatment was in the order of expensive charge for TKM treatment, uncertainty of TKM treatment effect.

Conclusions : Through this research, we can understand the perception about TKM hospital treatment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patients visiting TKM hospitals.

Key words : surve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spital, oriental hospital, perception

Ⅰ. 서 론

현재 각국의 의료체계는 서구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국가에서나 자체의 전통의료 또한 존재하고 있으며 그 효용성이 인식되어 있다[1].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의료는 한방의료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가치에 있어서도 인구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 교신저자: 신현규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24번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EBM센터
TEL: 042-868-9464 FAX: 042-864-2120
E-mail: hkshin@kiom.re.kr

이러한 한방의료체계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두 단계의 의료 전달 수단을 통해 시술되고 있다. 한방병원은 의료법 상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3], 한의원은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이라 하여[4] 이 두 의료체계의 주된 역할을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명시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진단기기 및 의료기기 등을 갖추어 의원과 역할이 구분되어있는 양방병원에 비해 한방병원은 한의원과 대별되는 구분점이 모호하고[5], 한방병원의 환자층이 어떤 이유로 한방병원을 내원하였는지 그 유입 경로가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및 한방병원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에서 한방병원의 선호도와 한방병원의 내원 이유 및 그 빈도를 설문하여, 한방의료에서 한방병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조사방법

일반인 조사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7일까지, 20대 이상 전국 남녀를 온라인으로 1771명, 60대는 개별 면접 방법으로 229명을 조사하였고, 내원환자 조사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08년 12월 9일까지 142개 한방병원 중 59개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 14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 항목에서 일반인 대상 설문에서는 일반사항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등을 조사하였고, 인식도 조사문항으로 일반적인 선호 의료기관, 한약복용 선호 의료기관, 침 치료 선호 의료기관을 설문하였다. 한방병원 내원 환자 대상 설문에서는 일반사항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조사하였고, 인식도 조사 문항으로 한방병원 내원 환자의 경우 한방 진료 이유, 한방병원 방문 이유, 동일 한방병원 진료 경험, 과거 한방병원 진료 빈도, 타 의료기관 경험 유무와 빈도, 동일 질병으로 최초 이용한 의료기관, 한방 진료의 우려점에 대해 설문하였다.

2. 조사결과

1) 일반인

(1)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 환자의 성별은 남자 1001명(%), 여자 999명(%)이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509명(2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497명(24.9%), 20대 455명(22.8%), 50대 318명(15.9%), 60대 221명(11.1%)순서로 나타났다.

(2) 한방의료에 대한 일반인식

① 일반적인 선호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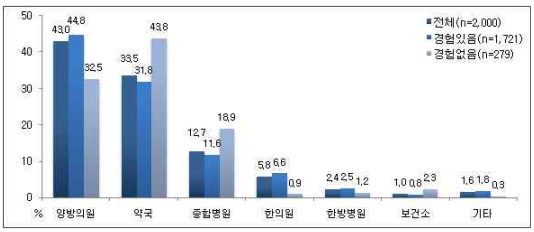

Fig. 1. Generally Prefered Medical Institution.

전체 응답자에게 몸이 아플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인지 질문한 결과 '양방의원'이 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약국'이 33.5%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5.6%로 나타났고, 한방병원은 2.4%로 나타났다.

한방진료 이용 경험별로 살펴보면,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양방의원'을 찾는다는 비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국'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31.8%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이 11.6%, '한의원'이 6.6%, '한방병원'이 2.5%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는 '약국'을 찾는다는 비율

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방의원'이 32.5%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이 18.9%, '보건소'가 2.3%, '한방병원'이 1.2%, '한의원'이 0.9%로 나타났다.

② 한약 복용

Fig. 2. Prefered medical institution for herbal medicine treatment.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약을 복용할 때, 혹은 복용 한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어디인지 질문한 결과, '한의원'이 76.3%로 가장 높았고, '한약방'이 8.7%, '한방병원'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 이용경험별로 살펴보면,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한의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8.8%로 가장 높았고, '한약방'이 7.5%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은 6.9%로 나타났다. 한방진료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한의원'이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약방'이 16.2%로 나타났으며 '약국'이 9.8%, '한방병원'이 5.4%로 나타났다.

③ 침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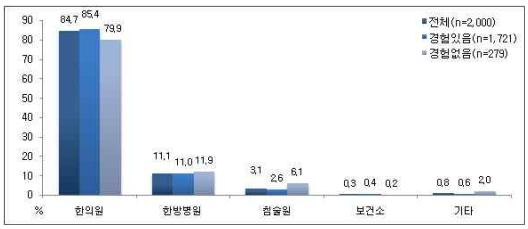

Fig. 3. Prefered Medical Institution for Acupuncture Treatment.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침을 맞을 때, 혹은 맞는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어디인지 질문한 결과, '한의원'이 8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방병원'이 11.1%, '침술원'이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 경험별로 살펴보면,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한의원'의 응답 비율이 8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이 11.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한의원'이 7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방병원'이 11.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2) 한방병원 내원 환자

(1)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 환자의 성별은 남자 521명(36.9%), 여자 890명(63.1%)이었고,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353명(2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322명(22.9%), 50대 285명(20.3%), 20대 193명(13.7)순서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시단위에 거주하는 사람이 620명(4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광역시 392명(28.3%), 서울특별시 285명(20.6%), 군 89명(6.4%) 순임을 알 수 있다.

Table 1. Social Characteristic of Respondent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521	36.9
	여	890	63.1
	계	1,411	100.0
연령	10세 미만	10	0.7
	10대	19	1.4
	20대	193	13.7
	30대	353	25.1
	40대	322	22.9
	50대	285	20.3
	60대	132	9.4
	70대 이상	93	6.6
	계	1,407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285	20.6
	광역시	392	28.3
	시	620	44.7
	군	89	6.4
	계	1,386	100.0

(2) 한방진료 이용 이유

한방병원 이용자에게 양방진료 보다 한방진료를 이용하는 이유를 질문했을 때 '양방치료나 양약보다는 한방 치료가 더 효과가 있어서' 한방진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469명(3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방치료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방치료도 하고 싶어서' 446명(32.0%), '수술과 검사, 양약복용하기가 싫어서' 210명(15.1%), '체질적으로 한방치료가 맞다고 판단해서' 157명(11.3%)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질병이 한방에 적합하다고 생각', '질병의 근원적 치료', '양방치료의 부작용으로 한방진료 선택'등이 있었다.

Table 2. The Reason for Recieving Traditional Korean Medical Care

구분	빈도(명)	비율(%)
양방치료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방치료도 하고 싶어서	446	32.0
양방치료나 양약보다는 한방치료가 더 효과가 있어서	469	33.7
수술과 검사, 양약복용하기가 싫어서	210	15.1
체질적으로 한방치료가 맞다고 판단해서	157	11.3
기타	110	7.9
계	1,392	100.0

(3) 한방병원 방문 이유

한의원보다 한방병원을 방문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명성과 신뢰성 때문에'로 응답한 응답자가 514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변 친지 및 친구의 권유' 298명(21.9%), '한의원보다 더 진료를 잘할 것 같아' 297명(21.9%),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121명(8.9%)순이었다.

Table 3. The Reason for Visit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spital

구분	빈도(명)	비율(%)
한방병원의 명성과 신뢰성 때문에	514	37.8
다른 의료기관의 한의사 및 의사의 권유가 있어서	60	4.4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121	8.9
한의원보다 더 진료를 잘할 것 같아	297	21.9
언론 및 인터넷을 보고	69	5.1
주변 친지 및 친구의 권유	298	21.9
계	1,359	100.0

(4) 동일 한방병원 진료 경험

설문조사가 실시된 한방병원의 과거 이용 경험을 물었을 때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73명(49.7%)이었으며,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682명(50.3%)으로 응답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Experience Treated in Sam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spital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673	49.7
없다	682	50.3
계	1,355	100.0

① 과거 한방병원 진료 빈도

한방병원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이용 빈도를 알아 보았다. 연평균 이용 횟수가 1-2회가 222명(3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6회이상 155명(24.3%), 3-5회 141명(22.1%), 6-10회 78명(12.2%), 11-15회 41명(6.4%)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Frequency of Experience Treated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Hospital of he Past

구분	빈도(명)	비율(%)
1-2회	222	34.9
3-5회	141	22.1
6-10회	78	12.2
11-15회	41	6.4
16회 이상	155	24.3
계	637	100.0

(5) 타의료기관 경험 유무와 빈도

한방병원 이용 전 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72명(72.3%)로 경험이 없는 373명(27.7%)보다 많았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지난 1년간 타 의료기관의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1회 187명(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2회 170명(25.8%), 3회 102명(15.5%), 4회 78명(11.8%) 순이었다. 총 응답자의 97%가 10회 이하로 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Experience of Treatment in Other Medical Institution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972	72.3
없다	373	27.7
계	1,345	100.0

Table 7. Frequency of Treatment in Other Medical Institution

구분	빈도(명)	비율(%)
1회	187	28.4
2회	170	25.8
3회	102	15.5
4회	78	11.8
5회	47	7.1
6회~10회	55	8.3
11회 이상	20	3.0
계	659	100.0

① 동일 질병으로 최초 이용한 의료기관

한방병원에 내원 전 최초 이용한 의료기관 종류를 알아보았다. 종합병원이 239명(27.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양방병원 237명(26.8%), 양방의원 206명(23.3%), 한의원 197명(22.3%), 보건소 5명(0.6%)으로 나타났다.

Table 8. Medical Institution Visited for Same Disease

구분	빈도(명)	비율(%)
한의원	197	22.3
양방의원	206	23.3
양방병원	237	26.8
종합병원	239	27.0
보건소	5	0.6
계	884	100.0

(6) 한방진료의 우려점

한방진료를 받을 시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보험이 안되는 고가의 진료비가 걱정된다.'가 609명(4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방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걱정된다.' 337명(25.0%), '양방치료도 같이 받아야 하는지가 걱정된다.' 178명(13.2%), '침이나 한약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된다.' 119명(8.8%)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정확한 진단명의 없음', '전체적으로 진료비가 비쌈', 'X-ray등을 이용한 진단이 필요'등의 여러 기타 의견도 있었다.

Table 9. Concern about Traditional Korean Medical Treatment

구분	빈도(명)	비율(%)
한방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걱정된다.	337	25.0
침이나 한약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된다.	119	8.8
보험이 안되는 고가의 진료비가 걱정된다.	609	45.2
양방치료도 같이 받아야 하는지가 걱정된다.	178	13.2
기타	104	7.7
계	1,347	100.0

III. 고 찰

한방병원은 의료법상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외래 진료만으로 치료하기 힘든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방의료기관이라는 데에 한의원과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한방병원의 환자층이 한방병원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유입경로로 내원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한방병원의 수는 2004년 12월 기준 156곳에서 2007년 12월에 142곳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2008년 12월 146곳, 2009년 4/4분기 158곳, 2010년 1/4분기 165곳까지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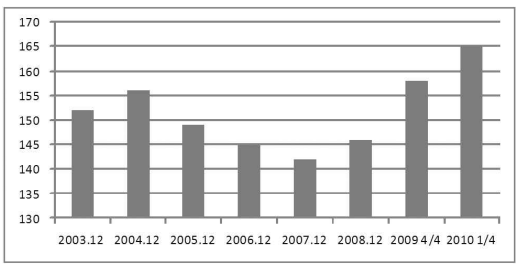

Fig. 4. Numb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spital by Year

본 조사에서 조사한 일반인들과 한방병원 방문환자의 한방의료시의 한방병원 선호도와 유입 경로 및 한방진료의 선택 요인 등을 통해 한방병원이 어떻게 인식되어있는지 파악하고, 또한 한방병원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적인 선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중 43.0%가 양방의원을 선호했고, 약국이 33.5%로 그 뒤를 이었으며 종합병원은 12.7%로 3위, 한의원은 5.8%로 4위, 한방병원은 2.4%로 5위를 차지했다.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군에서는 양방의원이 44.8%로 1위, 약국이 31.8%로 2위, 종합병원이 11.6%로 3위, 한의원은 6.6%로 4위, 한방병원은 2.5%로 5위가 되어 전체 순위와 같았으나, 한방진료 경험이 없는 군에서는 약국이 4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32.5%로 양방의원이었으며 종합병원이 18.9%로 3위, 보건소가 2.3%로 4위, 한의원, 한방병원이 각각 0.9%, 1.2%로 5위와 6위가 되어 한방진료의 경험이 있는 군과 순위의 차이를 보였다. 한방병원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전체 선호도(2.4%)와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군의 선호도(2.5%)가 비슷하였으나, 한방진료 경험이 없는 군의 선호도(1.2%)는 낮아 한방진료 경험이 없는 군은 한방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한의원의 경우와도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한의원에 대한 전체 선호도(5.8%)에 비해 한방진료경험이 없는 군의 선호도(0.9%)는 차이가 더 컸고, 심지어 한방병원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방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 한의원에 비해 한방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약 복용 선호 의료기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비율은 한의원이 76.3%의 비율로 가장 선호되며 한약방이 8.7%로 2위, 한방병원은 6.7%로 3위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약 복용에 있어서 한방병원의 선호도가 한약방보다도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한방진료 경험이 없는 군에서는 한약방(16.2%), 약국(9.8%)등이 한방병원(5.4%)보다 오히려 선호도가 높아 한방병원에서의 한약 복용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침치료 선호 의료기관에 대한 설문에서 한방병원은 전체 선호도가 11.1%였고,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군에서 11.0%, 한방진료 경험이 없는 군에서는 11.9%로 큰 차이가 없었다. 침치료에 대한 선호도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도합 95.8%로 침술원이나 보건소보다 높았다.

한방병원 내원환자의 조사대상자 중 여자 환자가 63.1%로 36,8%를 차지한 남자 환자에 비해 뚜렷하게 많았다. 이는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층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30대가 25.1%를 차지에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0대가 22.9%로 2위, 50대가 20.3%로 3위, 20대가 13.7%로 4위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진료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방치료나 양약보다는 한방치료가 더 효과가 있어서'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방 치료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방치료도 하고 싶어서'가 32.0%로 근소한 차이의 2위로 나타났다. 이는 양방치료보다 한방치료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강 등[7]의 연구 결과에서도 한방을 찾는 이유로 '그 병에는 한방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질환에 따라 한방치료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층 또한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려하는 층이 32.0%로 나타난 것은, 양방치료를 하고 있더라도 부가적으로 한방치료도 원하는 비율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8]의 연구결과에서도 양·한방협진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84.4%로 나타난 것도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동시에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한의원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한 서 등[9]의 연구에서도 '양방치료도 하면서 동시에 한방치료도 하고 싶어서'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양방치료나 양약보다는 한방 치료가 더 효과가 있어서'가 32.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는데, 한방병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한 본 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동시에 원해서 한방진료를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의원 내원환자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방병원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방병원의 명성과 신뢰성 때문에'라는 답변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 친지 및 친구의 권유'와 '한의원보다 더 진료를 잘할 것 같아'라는 답변이 모두 21.9%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한국한의학연구소[10]의 조사를 보면 한방병원의 선택 동기에 대해서 '한방병원의 명성 및 신뢰성'과 '내 질병은 양방보다 한방이 더 잘 나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높게 나와 한방병원의 선택 동기에 있어서 명성과 신뢰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방이나 한의원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다는 인식 또한 선택의 주요한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 등[11]과 김 등의 연구[12]에서도 한방의료기관의 선택 경위에서도 '친지권유에 의한 선택'이 각각 41.5%와 66.7%로 나타났으며, 진 등의 연구[13]에서 역시 병원 선택 동기로 '다른 사람 권유'가 31.2%로 높게 나타났고, 권 등의 연구[14]에서도 '주위 사람이 권해서'가 42%로 높게 나타났다. 한의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서 등의 연구[9]에서는 한의원을 방문한 이유로 '한의원의 명성과 신뢰'가 49.5%가장 많았고, '지인의 권유'가 30.5%로 그 다음을 이어 한방병·의원의 명성과 신뢰 및 지인의 권유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원의 경우 그 비율도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한방병원 방문 이유로 '한방병원의 명성과 신뢰'가 더 앞서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요한 것은 한의원보다 더 진료를 잘할 것 같아'라는 답변도 '주변 지인의 권유'와 같이 공동 2위라는 방문 이유로 나타났다.

동일 한방병원의 진료경험을 물었을 때, 있다가 49.7%, 없다가 50.3%로 본 조사에서 나타난 한방병원의 초진 대 재진의 비율은 1:1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이용 빈도를 물었을 때, 연평균 1-2회가 34.9%, 16회 이상이 24.3%, 3-5회가 22.1%, 6-10회가 12.2%, 11-15회가 6.4%로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여 적은 빈도로 이용하거나 혹은 아주 높은 빈도로 꾸준히 한방병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72.3%은 한방병원 이용 전 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의 타

의료기관 이용 빈도는 1회가 28.4%, 2회가 25.8%, 3회가 15.5%, 4회가 11.8% 등으로 절반 이상인 54.2%가 타 의료기관을 1회 내지 2회는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질병으로 최초 이용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27%), 양방병원(26.8%), 양방의원(23,3%), 한의원(22.3%) 으로 항목별로 큰 차이 없이 균등하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조사로 목동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15]에서도 양방병의원을 먼저 이용하고 내원한 환자가 59%,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이용하고 내원했거나 혹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가 27%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 결과들을 통해 환자들이 양방병의원 진료(77.1%) 후,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양방치료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방진료도 받고 싶어서나, 양방치료나 양약보다는 한방치료가 더 효과있어서나, 수술과 검사, 양약 복용이 싫어서 등과 같은 양방의료 보다 비교 우위의 기대감으로 한방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방진료의 우려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보험이 안되는 고가의 진료비'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방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25.5%로 2위로 나타났는데, 고가의 진료비와 한방치료의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한방치료의 진료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사한 조사로 유의 연구[16]에서도 한방의료의 진료비용에 대해 인식수준이 3.69(5점 만점)으로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 등의 연구[17]에서는 58.8%, 진 등의 연구[13]에서는 74.7%의 한방병원 입원환자가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한의학연구소의 조사[10]에서도 한방의료가 양방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서 물어본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4.1%가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한방진료비가 비싸다고 인식되는 원인으로 비보험 항목이 많은 것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한방병원의 설립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양방병원 및 동종 한방병원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 있다. 한방병원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등의 연구[18]에서는 한방병원의 외래환자의 비중을 보았을 때 그 비중이 높을수록 규모나 수익률이 높고, 외래환자의 비중이 낮을수록 수익률 또한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외래환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한방병원의 경영 상태를 개선시킬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알아본 한방병원 내원 환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동기로 가장 높은 요인은 한방병원의 명성과 신뢰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변 지인들의 권유와 한의원에 비한 진료 수준의 우위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한방병원에 환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한방병원에 대한 폭넓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명성을 높이고 양방의료에 비해 환자들에게 비교 우위의 진료와 치료효과를 공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그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한방병원 내원한 환자들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환자들의 한방병원 유입 경로 및 이용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일반인들은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으로 양방의원, 약국,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순으로 선호했고, 한방병원의 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2. 일반인들은 한약 복용시 선호하는 기관으로 한의원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한방병원은 한약방, 약국보다 선호도가 낮았고, 침치료 기관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3. 한방병원 내원환자들은 한방 진료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양방 치료보다 한방 치료가 더 효과가 있어서라는 대답과 양방치료와 동시에 한방치료도 받고 싶어서 라고 하였다.

4.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초진과 재진의 비율은 1:1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조사 대상자의 72.3%는 한방병원 이용 전 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횟수는 97%가 10회 이하라고 대답했다.
6. 동일 질환으로 최초 이용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양방병원, 양방의원, 한의원의 순서대로 나타났으며, 환자들이 양방 병·의원 진료(77.1%) 후, 한방병원으로 내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한방진료에 대한 우려점으로는 비싼 진료비(45.2%)와 한방치료의 효과 여부(25.0%)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박성순, 남철현. 한국인의 한방의료이용에 대한 인식과 행태 요인 분석. 대한보건협회학술지. 1999;25(2):34-50.
2. 이상영, 변용찬. 양·한방 의료협진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97-13>.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1997, p. 83.
3. 의료법 제3조의2.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4. 의료법 제3조.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5. 고수경. 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한방병원산업의 사회적 역할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p. 28-9.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실적 요양기관현황. http://www.hira.or.kr/
7. 강병조, 채병진, 권도훈, 김풍택, 김재식. 양방과 한방에 대한 인식 조사. 생물치료 정신의학. 1999;5(2):35-43.
8. 조재국. 한방의료 이용자의 한방의료에 대한 태도 및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도 분석. 보건복지포럼. 2004:76-93.
9. 서영준, 강신희, 김연희, 최대봉, 신현규. 한의원 환자들의 한방의료 이용 행태 및 만족도 실태. 대한한의학회지. 2010;31(2):124-36.
10. 이응세.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소; 1999, p. 160.
11. 송건용, 홍성국. 한방의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p. 75.
12. 김지용, 김경호, 김장현. 모 한방병원 내원 환자의 의료이용실태. 대한한의학회지. 2000;21(4):129-37.
13. 진삼곤, 남은우. 양방과 한방병원의 협진체계에 대한 입원환자의 인식도. 병원경영학회지. 1998;3(1):134-59.
14. 권성실, 오철동, 양승렬, 이행훈, 강희철, 정의식. 양방과 한방 진료에 대하 환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 기초 조사. 가정의학회지. 1992;13(11):891-900.
15. 김민정, 김종한, 박수연, 최정화, 박용호, 김대수, 정민영. 동신대 목동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내원환자의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 2007;20(3):181-90.
16. 유왕근.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및 개선 여구도.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3;7(2):45-64.
17. 김송현, 김명호, 남은우. 東洋醫學と西洋醫學を利用する患者の疾病行動分析. 民族衛生. 日本民族衛生學會. 1992;58(2):111-2.
18. 이호정, 김경성, 박상준. 한방병원 유형화 분석. 한국항공경영학회지. 2009;7(3):137-46.